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작은 국제포럼 추진결과 보고

1. 개요

□ 행사 취지 및 추진방향

-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10.15)을 맞이하여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농특위 공동 주최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
-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마련

□ 주제: 지속 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 일시·장소: '20.10.15(목), 14:00~16:30, 영상회의(스튜디오/각자)

* 스튜디오: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60, 동우빌딩 201호(지하철 왕십리역 주변)

□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참석자: 반다나 시바 박사(인도), 김영란 포럼위원장 및 포럼위원, 여성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 스튜디오에는 좌장 및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5명 이내) 모여서 진행

□ 주요내용: 주제에 대한 초청강연과 토론, 농어업여성 단체장과의 대담

2. 주요 내용 및 결과

① 반다나 시바박사(인도, NAVDANYA Director) 초청강연 및 토론

- ▶(주제)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역할**
(The Role of Rural Women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 ▶(명사) 반다나 시바 박사(인도, NAVDANYA Director)
- ▶(진행) 김영란 포럼위원장(농특위 본위원)
- ▶(토론) 윤금순 위원(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김정희 상임이사(사. 가배울), 오미란 팀장(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

- 농촌 여성들은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 경제를 실천하는 지속가능성의 과학 전문가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구 중심적, 여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 생물다양성은 지속가능성과 건강의 기반이며, 여성은 건강한 토양, 가족, 공동체에 대한 돌봄으로 다기능적 체계를 발전시킴
- 씨앗은 생물다양성의 상징이며, 푸드 시스템에서 중요함. 여성의 종자주권은 여성의 지식과 경제적 주권에 있어 핵심임
- 지구 중심의 운동이자 여성 중심의 운동으로써 시작한 **나브다냐 운동을 소개함**
 - 나브다냐는 150개의 공동체 씨앗은행을 세워 공유자산으로써 씨앗과 종자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토론과 질의응답

우리나라 농촌 공동체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과 지위, 농생태학 여성농업의 실천과 도시 여성들과 연대하여 먹거리화한 사례 소개. 또한 시바 박사가 관여하고 있는 테라 마드레 식당운동과 나브다냐 종자주권운동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 식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조언,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갈 것인가 등을 논의

- (윤금순 위원)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성농민들의 활동 등을 소개, 당면한 위기의 해법은 자연과 인간, 사회가 모두 유기적인 연결 체계로 생산하고 살아가야 하며, 그 중심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
 - 우리 역시 농업을 생명과 돌봄이 아닌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 수단으로 대해왔음. 농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농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함.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도 생산 전 과정에서의 참여자와 결정권자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농업노동력 담당자로 전락해 옴.
 - 여성농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농생태학을 실천하고 토종종자를 지켜가고 있음. 그 예로 '언니네 텃밭'을 소개 함.

- 세계가 당면한 이 위기의 해법은 모두가 연결된 체계로 생산하고 살아 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여성농민이 있고 여성농민의 가치를 세계와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는 시작된다고 함

○ (김정희 상임이사) 사단법인 가배울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

- (질문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농생태학 여성농업이 비중있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인지?**

☞ (시바 박사)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효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님.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땅에 폭탄을 떨어뜨려도 우리는 이 한 종자를 지키겠다.'라고 한 사례를 봄. 하나의 종자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잠재적 미래의 희망을 지키는 것임. 종자를 지켜나가는 실천의 힘이 중요함

- (질문2) 테라 마드레와 나브다냐 운동에서 **토종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외에서 잘 되는 식당 사례나 관련 통계 등이 있다면 소개해 줄 것을 청함

☞ (시바 박사) '빌리하비에서 여름카페'를 소개. 직접 기른 것을 꼭 그 지역의 식당에서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

기업 차원에서의 계산보다는 가족과 지역단위에서의 판매와 소비를 염두에 두는 것이 나브다냐에서의 농생태학적인 생산방식임

바티마스 쌀을 공정무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족단위, 지역단위, 농가 및 농장단위에서 지속가능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함. 즉 지역의 식당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더 강조.

한국의 청년들이 나브다냐에 와서 교육받고 한국에 적용해보기를 제안함

○ (오미란 팀장) 인도에서는 농생태학, 여성주의 가치 등을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궁금함.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고려할 점**이 있다면 조언해 주기 바람

☞ (시바 박사) 나브다냐 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이고 그다음에 제도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신뢰가 밑바탕이 됨. 제도적 차원보다 신뢰에 기반하여 여성농민들을 믿고 자발적으로 해 온 운동임

참고로 이런 활동들이 담긴 여성농민의 날 관련 보고서를 보내겠음. 영어를 하는 한국 청년이 나브다냐를 방문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겠음

- (김영란 포럼위원장) 인도의 경우 오히려 농업을 방해하는 제도나 정책은 없는지?
 - ☞ (시바 박사) 씨앗은 인간의 발명물이 아니라 특허를 낼 수 없다고 함. 농민들은 종자의 보존 권리, 서로 교류하고 육종, 판매권리가 있음. 인도의 농림부와 했던 업무인데, 농민의 이런 활동에 대해 작년에 펙시가 농민을 고소하여 3천만 루피를 소송 제기함. 지적재산권법들을 검토·제시하여 결국 펙시가 소송을 취하함. 정부의 법도 있지만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싶음

- (김영란 포럼위원장) 종자주권, 농생태학, 생물다양성 지키기 등 지구를 살리는 일을 여성 농민들은 수백년 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 농민의 지속적인 활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봄

| | |
|---|--|
|  |  |
| 반다나 시바박사의 초청강연(현지 연결) | 김영란 포럼위원장과 반다나 시바 박사 |
|  |  |
| 토론 및 질의응답 | 진행자와 토론자(스튜디오) |

2 농어업여성 단체장과의 대담

- ▶ 시바박사의 강연 주제와 관련된 각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소개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모색해 봄
- ▶ (진행) 김영란 포럼위원장(농특위 본위원)
- ▶ (토론) 강부녀 위원(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김옥임 위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김인련 위원(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안창희 사무총장(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이명자 위원(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소희 위원(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 (강부녀 위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가지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함
 - ①생태환경지킴이, ②지역사회공헌자, ③상생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홍보대사로서의 여성농업인 역할을 제시
- (김옥임 위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농생태 운동·공동체 조직화의 확산과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하는 식량주권 지키기 운동을 지속 추진
 - ①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②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언니네텃밭’, ③ 농생태 운동, 성평등한 농업 구현 등을 통해 역할을 설명
- (김인련 위원)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국내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연대, 저개발국 여성농업인과의 교류와 지원 활동을 통해 생활개선회가 추구하는 삶의 질 개선이란 목표를 이행하겠음
- (안창희 위원) 고령화된 어촌사회에서 여성의 어업활동 기여는 물론 바다환경 지킴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여성어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지위 향상과 제도적인 보완 및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명자 위원) 보조자의 역할에서 생산 및 농업경영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의 양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지속가능한 미래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 (이소희 위원) 청년,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촌과 자연환경 보존, 건강한 농산물 생산, 농업경영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 미래의 농업발전을 위한 후계양성, 농업에 대한 긍정적이미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니 응원 바람

- (문혜숙 위원)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체 간 협력 활동도 했으면 함. 지역에서는 연대하고 있음
 -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협에서도 체계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김영란 포럼위원장) 오늘을 계기로 청년여성농업인에게는 자부심과 방향을 갖게 되고, 여성단체에게는 선배로서 역할을 다지게 되는 기회로 한 발짝 나가는 연대의 장이 되었으면 함.



농어업여성 단체장과의 대담(화상회의)

3. 언론 보도 결과

- 내일신문('20.10.15). 이주의 농업·산림 소식
 -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 국제포럼
- 농촌여성신문('20.10.15). “여성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
- 농업인신문('20.10.16).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
- 한국농어민신문('20.10.20). “모든 도·시군에 여성농 전담부서 설치”

- 한국농업신문(‘20.10.16). “지구와 사회 돌봄 경제 실천이 여성농업인 역할”
- 농민신문(‘20.10.18). 농특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포럼…
“지구·여성 중심 세계관으로 전환 필요”
- 농수축산신문(‘20.10.19). 농특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
포럼 개최
- 농업인신문(‘20.10.23).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의 역할이 중요“
- 농촌여성신문(‘20.10.23). 오피니언 칼럼. 김영란 포럼위원장.
 - 여성농민은 지속가능성 과학의 전문가: 제1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반다나 시바 박사의 메시지

4. 향후 주요 계획

반다나 시바 박사 초청강연 유튜브 게시(10월)

* ‘초청강연 및 토론’ 생방송은 게시 완료, 초청강연만 한글 자막 처리하여 게시(11월)

제4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개최(11.25.)

* 주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공동체성